

주의 수난 성지 주일

제 1 독서 : 이사 50, 4-7

제 2 독서 : 필립 2, 6-11

복 음 : 루가 22, 14-23, 56

숲정이

“아버지,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루가 22, 42).

강론

“선택하는 예수”

김 영 태 신부 / 장수 천주교회

오늘 전례를 연극으로 꾸민다면 오늘 연극을 도와야 하는 분장사는 오늘 연극의 주인공을 위해 서로 다른 두 벌의 옷과 분장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어느 위대한 사람의 분장과 모든 이로부터 칠저하게 배척을 받는 사람의 옷과 분장,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옷과 분장이 한 주인공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분장사가 알게 된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 어찌면 인생의 비애를 느낄지도 모른다. 한 인물이 그것도 거의 동시와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멸시를 받아야 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다. 또 환멸을 느낄지도 모른다. 같은 사람을 두고 순식간에 변화되는 세상사람들의 평가를 두고서 말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와 똑같은 연극을 수시로 연출한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연출하는 이 연극은 묘하게도 그 주인공이 예수라고 하는 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위해 환호하고 열광하는 군중, 그리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는 군중들을 주인공으로 연출하는 연극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그 연극을 위한 분장과 연극을 준비하면서도 동시에 준비해야 할 두 벌의 옷과 두 가지의 분장을 잊고서 살아간다. 하기에 우리는 이 연극이 지니는 참의미를 깨닫지 못하는지도 모른다.

오늘의 전례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의미를 전해준다. 한편의 연극 안에서 준비되어야 하는 두 벌의 옷과 분장, 즉 영광이라는 옷 속에 숨겨져 있는 음모와 배신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옷 속에 담겨져 있는 희생과 그로 인한 구원의 의미를 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오늘의 전례는 영광이라는 가면으로 숨겨져 있는 군중의 음모와 배신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옷을 선택하는 예수라고 하는 진정한 주인공에 관심을 두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쓰면 벨고 달면 삼키는’ 군중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군중이 아닌 예수라고 하는 진정한 주인공을 맑아가는 삶을 지향해야 한다. 그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연출되어온 우리의 연극을 다시 한번 뵐살펴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참으로 많은 이를 위한 참다운 인생의 참연극인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리

“타는 목마름이여”

“봄은 왔는데 봄 같지가 않다”(胡地에 無花하니 春來不以春이라)는 탄식이 지금 우리 시국에 꼭 알맞은 소리로 들린다. 선거가 끝났으면 민주정치의 꽃소식이 있어야 할텐데, 진딧물 같은 벌레가 아직도 남아 있어 갑갑하기 그지없다. 소위 안기부 사건부터 시작해서 군 부재자 투표의 부정 의혹이 바로 그것인 바, 이러한 사태를 파헤쳐야 할 언론의 사명 포기와 정부여당의 미온적인 태도가 우리의 봄소식을 기를 쓰며 가로막고 있는듯이 느껴진다.

선거보도 감시 연대회의의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보도가 얼마나 편파적이었는가를 알 수 있다. 그 단적인 한 예로, 텔레비전 방송들의 군 부재자 투표 부정을 폭로한 보도를 들 수 있다. KBS 텔레비전은 폭로내용에 6초, 국방부 발표내용에 30초 그런가 하면 MBC 텔레비전은 폭로내용에 25초, 국방부 발표내용에 60초를, 그리고 SBS 텔레비전은 폭로내용에 13초, 국방부 발표내용에 40초의 시간을 할애했다는 것이다. 폭로내용을 보도한 시간을 1이라고 했을 때, 국방부의 발표내용에 KBS는 1.9배를, MBC는 2.4배를, 그리고 SBS는 3.1배의 시간을 할애한 셈이다.

국민들은 언론의 공정한 보도를 목말라 한다. 그런데 선거보도 감시 연대기구의 보고서 내용은 우리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다. 언론은 누구의 편이기에 앞서서 공정한 보도로 국민의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개인적인 이해득실이나 감정의 노예가 되어 스스로가 그 임무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어찌라는 말인가! ■

숲정이 산책



성주간을 맞이하여

“성 주 간”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지난 채의 수요일(3월4일)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을 희망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십자가의 길(금육, 단식, 금주, 금연, 애굽, 희생, 봉사 등)을 걸으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인 ‘빠스카’ 축제를 준비해왔다.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에 참여하는 일년 중 가장 중요하고 뜻깊은 성주간(성지 주일-부활성야)을 맞이하여 성주간의 의미를 간단히 소개한다.

성지 주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빠스카’ 신비를 완성하기 위하여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실을 기념한다. 이날 우리는 믿음을 다하고 열성을 다하여 야고마우신 입성을 기념하며 주님을 따름으로 온총을 통해 십자가와 같은 운명을 닮고, 또한 주의 부활과 그 생명에 한 뜻을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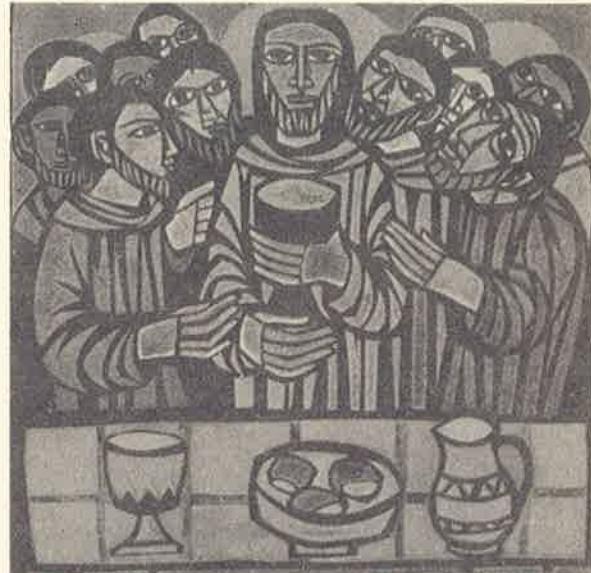
성월요일- 라자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값비싼 향액을 부은 이야기가 소개되고, 예수께서는 그녀의 행동이 당신의 장례날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요한 12, 1-11).

성화요일: 예수께서는 당신이 제자들로부터 배반당하실 것이라는 것과 특히 베드로가 3번이나 모른다고 하리라는 것을 예고한다(요한 13, 21-33. 36-38).

성수요일- 예수께서 ‘빠스카’ 축제를 지키시고, 당신이 어떻게 죽으실지 예고한다(마태 26, 14-25).

이 3일 동안에 특별한 전례는 있지만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 같다.

성목요일- 이날은 신품성사와 성체성사 제정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래서 오전에는 교구의 전사제들이 주교좌 성당에 모여 주교님과 함께 미사를 드리고 서품 때의 서약(정결과 순명)을 간증하며, 일년 동안 사용할 예비자 성유, 병자 성유, 크리스마 성유를 축성한다. 그리고 저녁에는 당신의 몸과 피를 음식으로 주신(성체성사) 만찬미사가 거행되고, “서로 사랑하라”(요한 13, 34)는 세계명이 선포되며 당신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세족례가 이어진다. 영성체 후 본 감실은 비우고, 성체를 현양제대(무덤제대)에 모신다. 그리고 제대를 벗기고, 십자가를 가리며 종과 악기 사용을 금지한다. 이는 예수께서 3일 동안 땅에 묻혀 계셨음을 드러낸다. 신자들은 현양제대에 모셔진 성체를 조배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기까지 기도와 번민으로 고통을



최후의 만찬

당하신 예수님과 함께한다. 성체조배는 성금요일 수난예절까지 이어진다.

성금요일- 이날은 예수께서 인류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신 날로 교회가 미사를 드리지 않는 유일한 날이다. 이는 주님의 깊은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기 위함이다. 오후 3시 또는 저녁에 거행되는 수난예식, 말씀의 전례, 장엄기도, 십자가 경배예식에 참여하여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야겠다.

성토요일[부활성야, 망부활(望復活)]- 이날은 주께서 무덤을 여시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삶으로 건너가심(빠스카)을 기억하는 거룩한 밤이다. 성토요일 밤의 전례는 불과 부활초를 축성하고 행렬을 한다. 이는 부활로써 어둠을 물아내고 빛이신 그리스도를 깨어 기다리기 위함이다. 말씀의 전례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되새기고, 구원의 은총을 기원하며 장엄하게 대영광송을 노래한다. 그리고 성세수 축성과 세례식 이후 모두가 촛불을 밝혀 들고, 새영 세자와 함께 성세서약을 간증하며 영성체로써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결합, 그리스도의 빛이 자신 안에서 거지지 않도록 하며 부활의 기쁨을 살아간다.

새 쌍 화 원
동 양 란 전문
유 제 형(바오로)
김 영 근(크리스티나)
☎ 72-9044
(호) 012-684-4876

광신보일러 공구사
귀뚜라미, 경동, 대원,
ABC보일러,
각종 공구 판매
박찬근(필립보), 과선자(비비안나)
☎ 86-5038
구 형무소 삼거리←→모래내

옹변을 배웁시다. 발표력을 기
롭시다.
호남옹변종합학원
호남(제일예식장 뒤)☎ 252-7313
새호남(전주역 앞)☎ 253-1411
효자(삼천동쌍용APT앞)☎ 221-8331
원장 유병철(베드로) 박경애(안젤라)

형제열쇠
APT 보조기, 빨래건조대
각종 열쇠 수리 복제, 조립식
선반
약촌 신일, 동신APT 입구
권병문(필립보), 곽영애(아네스)
☎ (0653) 841-5626

잠 깐

“남북한 장애인 걷기 대행진”

■ 남북 분단으로 인하여 장애가 된 조국에 하루빨리 통일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장애인들이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걷기 대행진에 나섰습니다. 또한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장애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해 ‘사랑의 보장구’(휠체어, 의족, 의수, 맹인용 지팡이, 보청기 등) 보내기 운동이 ‘남북한 장애인 걷기 대행진 본부’에 의해 적극 전개되고 있습니다.

■ 지난 4월10일 한라산에서 시작되어 걷기 대행진에 나선 장애인들이 오는 4월14일(화) 오후2시 이곳 전주를 통과하게 됩니다. 뜻깊은 목적을 가지고 장한 행진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물론 우리 주변의 장애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또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 교회에서도 아래와 같은 행사에 참여합니다. 가능한 한 신자들은 거룩한 사순시기에 예수님의 고통을 새기며 이 뜻깊은 행사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 내용 ~~~~

- 제 1부 : 남북한 장애인 걷기 대행진 전라북도 지역행사

일시 : 4월14일(화) 오후2시~2시30분

장소 : 총화탐(고속도로 톨 게이트 옆)

참조 : 주교님 참석 격려사

- 제 2부 : 전라북도 걷기 대행진

일시 : 4월14일(화) 오후3시~4시30분

장소 : 전주 시청~좁은목 약수터

주관 : 남북한 장애인 걷기 대행진 본부

천주교 전주교구 총대리 유장훈 신부

교 구 소식

* 엄마들을 위한 영화 상영 : 4월13일(월) 오전10시 교구청 별관 1층, 제목-구세주

- 성금요일 십자가의 길 : 4월17일(금) 오후3시 치명자산, 집전-이병호 주교.
- 사순절 공동 헌금의 날 : 오늘 4월12일(주의 수난 성지 주일) 각 본당에서 있습니다.
- 성지 복구를 위한 특별 헌금 : 4월17일(성금요일) 각 본당에서 있습니다.
- 성서교실(전주지역) : 성주간(4월12일~18일)은 쉽니다.
- 교도소사목 후원회 월례미사 : 4월13일(월) 오전10시30분 가톨릭센타 3층.
- 자연법에 의한 가족계획 교육 : 4월14일(화) 오전10시30분,
대상-미혼자, 임신·피임을 원하는 분, 교구청 별관 4층 행복한 가정운동(85-5098).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자신의 입장이 공해기업은 아닌지…

자신이 일하는 곳이 환경오염을 일으키거나 과소비를 조장하는 기업은 아닌지 살펴보고 그렇다면 함께 힘을 모아 해결방법을 찾아봅시다.

삼오건축자재상사

시멘트·목재·합판·내장재
가설재·스チ로ール·스레트·
골재

김기완(도마)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369-13
(삼호아파트 앞)
☎ 224-3535~6

정연머리방

신부화장전문, 특수헤어스타일,
컷트, 파마, 피부미용관리
효자동 제일여객 앞 골목
조정연(글라라)
☎ 223-4701

주단·침구·훈수 전문

부인주단
김한중(요한)
황인재(모니카)
전주시 전동 남문弄
☎ 84-7294

요십이 (975) 김병오



관리국 직원 구함

- 자격 : 영세한 지 3년 이상된 24세 이하의 미혼 여성(1명)
 - 제출서류 : 자필이력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제출마감 : 1992년 4월27일
 - 면접일자 : 1992년 4월30일
- 전주교구청 관리국 ☎ 85-0041

* 생활속에 동화를 불러냅니다!
원목가구·생활용품

미자트 중앙동대리점

관통로 진선미 꽃집 옆

☎ 84-8725
범덕배(디포)

대신 쟁크

각종 쟁크대 판매 및 수리
공장 직영

송재준, 박안순(로사리아)
공장 ☎ 213-2612
자택 ☎ 211-2515
동산동사무소 앞

현대 미용학원

미용·피부, 본과, 연구과
☎ 86-2211, 254-3003
김금순(데레사)
진북동 제일예식장 맞은 편

